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17호 / 03월 18일

미-이라크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- 중국내 전문가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-

1. 개요

- ☐ 미-이라크 전쟁 발발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내에서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,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항공업계 등 일부 산업분야에 국한되고, 그 정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- 중국 자본시장의 불완전 개방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고, 석유자급률이 70% 이상에 달해 단기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수급 및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- ☐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정적인 석유비축체제를 구축하고, 아울러 해외유전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.
- 중국정부의 추계에 따르면, 2010년에 중국의 석유공급 부족분은 1억 톤에 달하고, 2050년까지는 세계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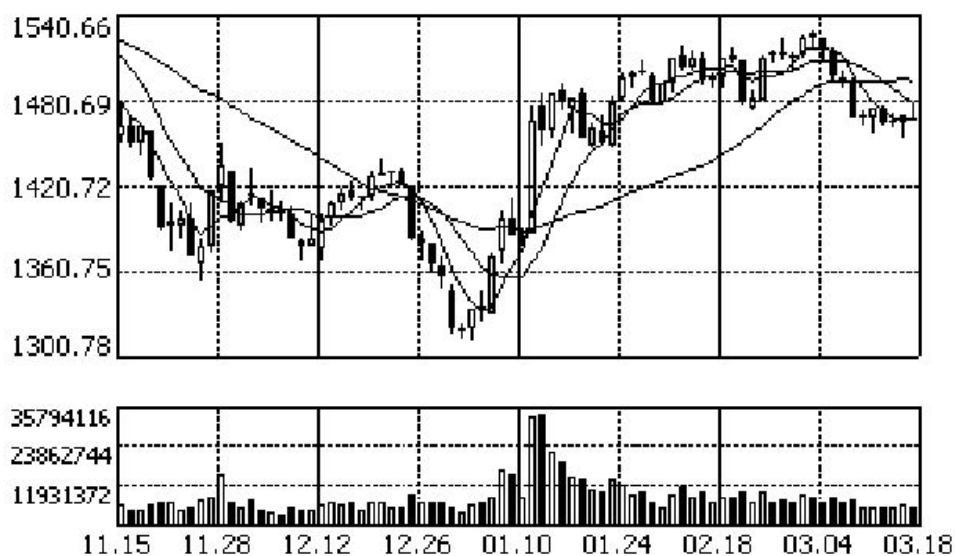
2. 미-이라크 전쟁 발발이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

1) 주식시장

□ 일반적으로 전쟁 발발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주식시장이지만,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자본시장의 개방정도가 낮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
- 중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등락에 연동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기자본의 악의적인 조작이 없을 경우 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음.
- 또한 대부분의 경우 주가의 등락 현상은 전쟁 발발 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데, 중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불안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음.
- 다만, 美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美증시 하락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고, 항공·원유·황금 관련 기업 주식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임.

<그림-1> 최근 중국 상해주식시장의 변화 추이



주: 2003년 3월 17일(월)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469.27을 기록.

2) 석유시장

□ 미-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이 중국경제 및 석유수급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.

-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一國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.1% 포인트에 불과하나, 중국의 경우에는 1%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.

- 특히 중국은 ‘고가(高價) 구입, 저가(低價) 판매’의 국내시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, 국제유가 파동이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봄.

- 중국은 매일 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, 원유가격이 배럴당 5달러 인상될 경우 매일 1,0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함.

□ 반면,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내 원유 수요량의 28%만 수입하고 나머지 72%는 국내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(2001년 기준), 단기적인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함.

- 중국은 세계 5위의 원유생산국이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로 1993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함

o 중국의 원유 순수입량은 2000년 7,000만 톤 → 2001년 6,000만 톤 → 2002년 6,941만 톤임.

- 또한,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주로 원유 선물시장의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, 설사 전쟁이 발발해도 여타 중동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희박하고,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증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.

-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항공료, 자동차 휘발유값 등의 인상은 불가피함.

3) 국제투자

- 미-이라크전쟁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국제정세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인바, 상대적으로 안정된 중국으로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.
-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美달러 매수세는 약화된 반면, 중국테마주가 아시아지역 자금의 대피처로 부상함.

4) 대외무역

- 미-이라크전쟁 발발이 대외무역부문에 미칠 영향은 전쟁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에 중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언론보도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다소 관망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.
- Wall Street Journal, Business Week지 등은 1991년 걸프전 당시 美주식시장이 급반등하고 국제원유가가 하락한 예에 비추어 이번에도 전쟁 이후 美주식시장의 회복을 기대
- 반면, LA Times 등 다수 미국언론은 실업률 상승, 국제원유가 인상, 전쟁발발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미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

5) 항공산업

- 국제유가 상승으로 중국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예상되는바, 이를 반영하여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항공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음.
- 중국은 항공유가와 항공료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바, 국제항공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2월 10일부터 국내항공료를 인상하였음.
- o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연료비용은 회사경영원가의 10~20%를 차지하나, 국제유

가 상승시에는 그 비중이 30~40%로 증가함. 또한 연료비가 갤런당 1 달러 상승할 경우 중국항공사는 매년 6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짐.

- 전쟁 발발시 항공여객 감소로 인한 대규모 손실도 예상됨.
- o 세계항공업계에 따르면, 1991년 걸프전 이후 14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, 미-이라크전쟁이 발발할 경우 항공여객수는 전세계적으로 15~20% 감소할 것으로 예측

6) 외환시장

□ 美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인민폐가치의 간접적인 평가절하 효과 가능성이 제기됨.

- 최근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와 엔화의 대량 매입 현상으로 미달러 가치가 연속 하락하고 있는바, 전쟁 발발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.
- 인민폐 환율이 미달러에 고정되어 있어, 미달러의 가치하락은 중국의 대외무역, 외화예금, 외자유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
□ 외환보유고 하락

- 전쟁 발발에 따른 석유수입비용 증가, 중동지역의 일부 국제청부프로젝트 중단, 해당지역에 대한 원양운수라인 중단 등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감소하고,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□ 금값 인상

- 국제황금가격의 파동으로 중국내 황금가격도 불안정해지고 있어, 조만간 g당 100 元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.

※ 상해황금거래소 금값 추이(AU99.99 원료금 기준)
(2003.2.3) 94.36元/g → (2.4) 96.46元/g으로 인상

7) 기타

☐ 중국의 노무수출 둔화

- 최근 중국과 중동국가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중동은 중국의 단순한 석유수입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요한 노무수출 시장으로 부상함.
- 미-이라크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동진출 노동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.

☐ 가전산업

- 중국 가전업체는 유가상승이 원자재가격 및 생산원가 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나,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, 일본, 유럽 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.
- 다만,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미·유럽시장의 구매력 하락을 초래,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.

3. 평가 및 시사점

☐ 중국내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-이라크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항공업계 등 일부 산업분야에 국한되고, 그 정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중국 자본시장의 불완전 개방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고, 석유자급률이 70% 이상에 달해 단기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수급 및 여타 경제분야에 미칠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음.
-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안

전한 투자처로서의 중국시장 선호현상을 야기, 국제자본의 對중국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기대함.

□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의 미-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안정적인 석유비축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함.

- 허우뤄스(侯若石) 清華大學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이 ▲석유비축체제 미비, ▲석유수입선다변화 시급, ▲유가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문제 등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함.

- 특히 빠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10년에는 석유 공급 부족분이 1억 톤에 달하고, 2050년까지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따라서 금후 중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략적인 석유비축체제 구축을 가속화 하고, 동시에 해외유전 개발, 대체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대책 강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.

- 우선, 중국은 중동지역 위기상황에 대비해 15억 7,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5,000만 배럴의 석유(현재 중국의 25일치 수입량에 해당)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짐.

- 또한 2005년까지는 전략석유 비축량을 30일치 수입량 규모로 늘릴 계획임.

- ※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석유수입량이 현재의 200만 배럴/日에서 2030년에는 980만 배럴/日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한편, 미-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내 전문가들은 전쟁 이후 전개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강화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미국이 전쟁을 단기에 종료하고 이라크내에 親美정부를 세울 경우, 원유생산량과 국제유가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를 통해 유럽 및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음.

- 전후 복구사업도 미국 주도하에 추진되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증

대시킬 것임.

-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, 단기전으로 끝나더라도 이라크 국내정세의 불안이 지속되고 아랍국가들의 반미정서가 확산되어 장기적인 혼란에 빠질 경우, 미국의 외교역량은 중동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,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.(***)

* 상기 내용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리샹양(李向陽) 부소장,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허우뤄스(侯若石) 교수,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수징샹(宿景祥) 연구원,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쑤신샤(孫新夏) 연구원, 중국가전협회 후샤오흥(胡曉紅) 연구원, 中國安邦증권사 등 전문가 견해와 인민일보, 신화사 등 주요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.